

# 화재 '조기경보'로 문화재 지킨다

### 전북, 시스템 개발 계획...군산시, 매뉴얼 마련

승려문 소실 후 지난 2월 27일 도내 175점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방재시설 일제조사를 마친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3월 10일 도내 목조문화재의 화재 경보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재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혔다.

화재 조기경보 시스템은 목조문화재에 부착된 연기 감지센서가 화재시 소방본부 상황실로 화재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라북도는 시스템 개발 후 문화재청 등과 협조해 도내 220개 목조문화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현재 42점 문화재에만 설치된 소화전을 2010년까지 96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억원을 들여 문화재 주위의 잡목을 불에 강한 동백나무 등으로 대체

### 연기 감지 센서가 소방 상황실로 자동으로 알려줘 2010년까지 소화전 설치와 산불 피해 예방 마련



군산소방서 소방관들이 3월7일 전북도 유형문화재 37호 상주사 대웅전의 산불대비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 내 문화재 39점에 대한 산불 피해 예방에 나섰다.

전라북도 산하 군산시도 목조문화재 보호 열기가 뜨겁다. 군산시는 목조문화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소방 훈련을 통한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3월 5일 나포면에 소재한 불주사를 시작으로 7일 서수면 상주사, 10일 옥구읍 옥구향교, 12일 소룡동 은적사 등 총 4회 걸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 중인 군산소방서는 합동 소방훈련 후 방화대책회의 등을 열어 신속한 조동진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방화대책회의에는 문화재 전문위원, 군산시청 공무원, 자위소방대원 등이 참석해 목조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진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佛法 전해”

불이 흠뻑 다가와 파사로운 햇볕을 쏟아내고 있는 이른 봄, 정읍 일광사를 찾았다. 정읍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구미산 입구에 자리 잡은 일광사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 이름 모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승천 스님이 있다.

승천 스님은 포교에 남다른 열정과 원력을 갖고 20여년간 전주 교도소와 군법당 청소년 법회 등을 운영했다.

스님은 “포교는 출가자 혼자만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한다”

다”는 스님의 교도소 교화활동은 법회 진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불우수용자 생활지원, 사회체험 및 봉사활동 후원, 수용자 자매결연 등 다양한 교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도소를 찾을 때마다 불교용품과 교화방송용 TV·VTR 등 기자재



도 기증한 스님은 수용자 교화 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 결과 승천 스님은 교도소 교화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교정대상 본상인 ‘자비상’을 수상했다. 전북 불교대학에 교수로 출

## 지역교도소·군부대·복지단체에 봉사활동 어려운이들 행복 누리도록 하는게 불자의 도리

는 생각에 1985년 일광사 부임 직후 신도조직을 활성화하는데 힘썼다. 신도조직 중 특히 거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스님은 줄곧 지역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늘진 사람의 아픔을 자비심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는 승천 스님은 설, 추석, 초파일이면 어김없이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 떡과 쌀 등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매 학기 초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간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승천 스님의 많은 포교활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도소 교화활동이다. “출소자들이 출소해 가정을 갖고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강하는 스님은 정읍 경찰서 경승, 정읍 검찰청 교화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90년에는 정읍 지역 스님들과 함께 육군 105연대 법당도 건립한 스님의 활동은 전방위적인 포교 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천 스님은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포교를 수행방편 삼다보니 오늘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스님은 “불우청소년 선도 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돌기, 장애인복지관 지원, 교정시설 수용자 교화활동 등 현재 활동을 그치지 않겠다”며 사회 봉사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체육인불자회 광주지부 장학금 수여

### 하키선수 김희수 학생 선발

조계종 체육인불자회 광주지부(지도법사 정학, 지부장 이용희)는 하키 선수인 김희수 학생(광주일고 2학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체육인불자회 광주지부는 불자 체육인 발굴 및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3월 10일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지도법사 정학 스님은 “김희수 학생은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과 운동(하키)을 병행해왔다”며 장학생 선발 이유를 밝혔다.

김희수 학생은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및 최우수선수상 수



정학 스님이 김희수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상하고,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준우승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봄 함께 맞아요”...농인회 군산교도소 법회



농인회의 교도소법회에서 김동학 포교사가 재소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북 익산지역 포교사들 모임인 농인회(회장 최학성)는 3월 12일 군산교도소 법당에서 새봄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불자 재소자 등 100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김동학 포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재소기간이지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참회기도 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익산 농인회는 매월 군산교도소 법회를 봉행하며 불자 재소자들에게 생활용품과 간식등을 보시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군산 동국사 번외불사 고불식 봉행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지정된 군산 동국사(주지 종상) 대웅전(등록문화재 64호)의 번외(기와)를 새로 얹을 불사가 시작됐다. 회주 재운 스님과 동국사 사부대중 300여명은 3월 10일 대웅전에서 번외불사 고불식을 봉행해 대웅전 번외불사가 불보살님의 기와와 호법신장님들의 외호 속에 원만 회향하기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창종 31주년 기원대법회

시방법계에 두루하신 삼보님께 지심정려 하옵고, 대덕 큰스님과 각계의 내빈께 합장예의를 올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은 성원에 힘입어 창종 31주년을 맞이하여 국가 안정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사무대중을 모신 가운데 봉행코저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 정: 영산 일공 (靈山一空) 부총정: 유념 법신, 천호 천호  
원 로 원: 송산, 선명, 신수, 성인 승정원장: 체운  
봉행위원장: 원정 성관(圓正 性觀)  
봉행위원: 체의, 평신, 진허, 해안, 해광, 해승, 선덕, 체명, 보각, 보운, 체각, 체선, 승운, 대전 준비위원: 보경, 정안, 진운, 해민, 각우, 도경, 해명, 해운, 진호, 오산

일 시: 불기 2552년(2008)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17 캐피탈호텔 (대연회장)  
연락처: (02)853-0531~2 팩스: (02)853-0533

##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원(종)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제28세 주지 경담스님 진산식 및 조실 해운 큰스님·회주 금용 큰스님 추대식에 대한 감사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2008년 3월 2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주지스님 취임식 및 조실·회주스님 추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신 큰스님들과, 기관장님들 신도여러분 그리고 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암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2년 3월 5일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경담 합장  
연락처 061)754-5247, 5953

